

# 광산구·북구 교통안전지수 ‘빨간불’

### 전국 69개 자치구 중 각 56위·52위 차이 동구·광산구 교통안전지수 ↓ ...대책 절실

광주 광산구와 북구의 2021년 교통안전지수가 전국 69개 자치구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구와 광산구는 교통안전지수가 전년보다 하락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5일 김태진 광주 서구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2021 전국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69개 자치구의 평균 교통안전지수는 78.66점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5개 자치구의 안전지수와 전

국 순위, 등급은 ▲남구 81.45점 (13위·B등급) ▲동구 80.84점 (17위·B등급) ▲서구 79.85점 (30위·C등급) ▲북구 77.72점 (52위·D등급) ▲광산구 76.82점 (56위·D등급)으로 드러났다.

동구와 광산구는 전년 대비 교통안전지수 증감 비율을 나타내는 개선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동구 2.79%·59위 ▲광산구 0.07%·41위 ▲서구 2.68%·11위 ▲남구 3.06%·9위 ▲북구 4.42%·4위로 집계됐다.

교통안전지수란 도로교통공단이 전

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수와 도로연장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지수다.

이번 조사는 227개 기초자치단체 (▲인구 30만 이상 시 29개 ▲인구 30만 미만 시 30개 ▲군 80개 ▲구 69개)를 대상으로 6개 영역 (사업용자동차·자전거 및 이륜차·보행자·교통약자·운전자·도로환경) 18개 세부지표로 나눠 평가됐다.

교통안전지수 결과는 정규분포를 고려해 총 5개 등급 (10%·A, 25%·B, 30%·C, 25%·D, 10%·E)으로 분류됐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규모를 고려해 4개 그룹별로 등급이 산정됐으며 인천 용진군과 경북 울릉군은 타 기초자치단체

대비 인구수와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 등이 현저히 적고 도시지역의 교통특성을 가지고 있어 평가에서 제외됐다.

평균 이하를 기록한 광산구는 운전자 영역 (74.87점·E등급·64위)이, 북구는 자전거 및 이륜차 영역 (75.95점·D등급·52위)의 교통안전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김태진 서구 의원은 해당 세부 사항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김 의원은 평균 이상인 남구 (80.01점·C등급·41위)와 서구 (78.24점·D등급·48위)는 도로환경 영역이, 동구 (76.44점·D등급·48위)는 보행자 영역에 대한 안전도가 타 지표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해 마찬가지로 안전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재영기자

## 사랑의 온도탑 전남 동부권서도 '활활'

### 여주시청 광장서 제막식

5일 전남 동부권에서도 사랑의 온도탑이 제막됐다.

이날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여주시청 앞 1호 광장에서 온도탑 제막식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노동일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정기명 여주시장, 김영규 여주시의회 의장, 허영호 전남 아너소사이터 회원 대표 및 여주시 아너소사이터

회원, 박성현 여수광양항공사 사장, 신윤호 한국남동발전㈜여수발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출범과 동시에 여수광양항공사에서 2천500만원을, 한국남동발전㈜여수발전본부에서 2천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사랑의 온도탑 온도를 높였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여수지역 복지사업을 위한 배분지원금 (신청사업, 차량지원사업, 월동난방비 지원 등) 3억 7천 255만원을 전달했다. /안재영기자



희망 2023 나눔캠페인 출범 및 사랑의 온도탑 1호 광장서 열렸다. 사진은 이날 제막식에 참석한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정기명 여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모습.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 서구 소상공인 89.2%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

### 사업전략·전문교육 절실

광주 서구 관내 소상공인들의 89.2%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 지원과 사업전략·전문교육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10월 여론조사 기관 (㈜코리야정보리서치)에 의뢰해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89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영업실태, 경영상태,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심 분야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 중 89.2%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 등 종사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매출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들은 매출 감소와 함께 운영자금 및 대출자금, 인건비, 임차료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 및 지자체에게 바라는 지원대책으로 '자금지원 및 대출 금리 인하 (57.3%)'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

세제 감면 및 임대료 지원 (22.7%), 고용 및 인건비 지원 (8.5%), 영업시설 개보수 (3.9%) 등을 바라는 응답자도 많았다.

아울러 응답자 81%가 매출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영업기법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서구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으로는 경영자금 대출지원 특례보증, 골목상권 활성화, 소규모시설 개선,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장 SNS홍보 지원 순으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재영기자

### 오늘의 날씨

지역 날씨 최저/최고온도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30~20	목포	00:27	05:52
목포	30~0		13:11	18:29
순천	0~20	여수	08:00	01:27
여수	0~0		20:04	14:02

###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60 (마스크 챙기세요)
- 빨래 30 (실내 건조 좋아요)
- 세차 50 (세차하기 좋은 날)
- 운동 70 (준비운동은 충분하)

### 주간날씨

지역	날씨	기온
전라(광주)	☁	(2/11)
서울경기(서울)	☀	(-1/8)
강원영동(강릉)	☀	(1/10)
충청(대전)	☁	(-1/9)
경상(대구)	☁	(0/10)
제주(제주)	☁	(7/13)
12월 7수	☀	(1/12)
8/목	☁	(0/9)
9/금	☁	(0/7)

▶ 날씨안내 : 국민일보 131

## 광산구, 취약계층 찾아가는 안전교육 운영

광주 광산구는 5일 "재난과 안전사고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매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신체적 사회적 요인 등으로 안전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 고령자, 외국인주민 등으로 대상으로 확대하고 지난 11월부터 교육을 진행 중이다. 대상자들의 원활한 교육 참여를 위해 노인 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어린

이집, 다문화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등 30곳을 직접 방문하고 있다.

교육은 낙상사고 전기사용 등 생활안전, 자연재난, 심폐소생술 등 전반에 걸쳐 20여 가지 안전사고의 발생원인, 예방법을 다룬다.

동영상 시청, 체험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사전에 원하는 분야를 신청 받아 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효과도 높이고 있다.

교육 완료 후에는 교육대상자와 기관(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 및 수업 만족도와 안전제감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안전교육에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육근기자

## 가족 친화형 테마파크 '남계 어린이공원' 준공

광주 동구가 어린이·학부모·어르신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형 힐링 테마파크를 선보였다.

동구는 5일 "전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가족 친화형 힐링 테마파크 '남계 어린이공원'을 새롭게 단장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계 어린이공원은 내남지구 개발과

함께 들어선 지한초등학교, 지한유치원과 착공을 시작한 구립도서관 등 어린이 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놀이시설 확충을 통해 신거주 단지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조성됐다. 남계 어린이공원은 가족 친화형 테마파크로 어린이, 학부모, 어르신 등 3대가 함께 어울려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오복기자

##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남도의 산해진미가 가득한

# 강진오일장터

● 장이 서는 날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강진군

문의 : 062)650-2099